

삼 뛰노는 정령치 습지·운봉 백두대간 국가생태관광지 지정

남원시·지리산 첫 선정...1172m 산악형 고산 습지 천혜의 자연 환경 에코촌·탐방로 등 시설 조성...치유의 숲·국립 등산학교 유치 계획

남원시는 지리산 정령치 습지와 운봉 백두대간 일원이 '환경부 2023년 국가생태관광지역'으로 신규 지정됐다고 19일 밝혔다.

남원지역에서 국가생태관광지역이 선정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환경부 '국가생태관광지역 지정 제도'는 지난 2013년 도입됐다.

환경적으로 보전 가치가 있고 생태자원을 체험할 수 있는 지역을 지정하고 있다.

국가생태관광지역에 뽑히면 탐방로와 에코촌 등 생태관광 기반시설을 조성할 수 있다. 다양한 생태관광 체험 개발·운영과 홍보도 지원받는다.

전국 29곳이 국가생태관광지역으로 지정돼왔으며, '1호 국립공원'인 지리산에서는 이번에 처음으로 국가생태관광지역을 배출했다.

국가생태관광지역으로 지정된 정령치 습지와 운봉 백두대간 일원은 지리산이 가진 천혜의 자연환경과 백두대간의 정기를 느낄 수 있는 생태보고의 집결지다. 핵심 구역인 정령치 습지는 1172m 높이에 있는 '산악형 고산 습지'이다. 기원전 1690년에 생성된 이 지대는 산림청 지정 희귀식물인 꽃창포와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 야생동물 삶이 서식하고 있다.

남원시는 국가생태관광지역의 체계적인 조성을 위해 '지리산 생태관광벨트 기본계획(마스터플랜)'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다.

지리산 생태관광지구는 생태 관광지 보전을 위한 '핵심구역'과 '생태교육·체험 활동 구역'으로 나뉜다.

핵심구역에는 정령치 습지와 지리산 둘레길, 에코 캠핑 삼전리길,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등이 포함됐다.

남원시는 국가생태관광지역 지정과 연계해 환경부 주관 '생태관광 페스티벌'과 산림청 '국립 치유의 숲' '국립 지리산 등산학교' 등을 유치할 계획을 세웠다.

지리산 일원 국가생태관광지역 지정은 생태 관광지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남원시의 민선 8기 공약사업으로 추진됐다.

최경식 남원시장은 국가생태관광지역 신규 지정을 위해 중앙부처와 국회를 수차례 방문해 사업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설명했다.

최 시장은 지난달 13일 현장평가와 같은 달 26일 발표평가에 참석해 평가위원들의 질문에 직접 답하기도 했다.

그는 "이번 국가생태관광지역 지정으로 지리산



남원 지리산 정령치 습지와 운봉 백두대간 일원이 최근 '환경부 국가생태관광지역'에 새롭게 지정됐다. 생태관광지역에 포함된 삼산마을 노송군락지. (남원시 제공)

정령치 습지와 운봉 백두대간 일원 천혜의 자연환경과 가치를 널리 알리고 생태관광 경쟁력을 확보할 기회"라며 "생태관광지역에 녹색성장 기반을 조성하고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남원=백선 기자 bs8787@kwangju.co.kr

고창군, 산불 대비 진화 헬기 전진 배치



11월1일~12월15일 산불 방지 기간

고창군은 가을철 산불 예방을 위해 진화 헬기(사진)를 전진 배치한다고 19일 밝혔다.

군은 다음 달 1일부터 12월15일까지를 '가을철 산불방지 기간'으로 지정했다.

산불 진화 임차 헬기는 흥덕면 용반리 계류장에 배치됐다. 고창군은 가을철 산불방지 기간 산불 전문예방 진화대원 40명, 감시원 56명을 배치해 산불 예방·초동진화 태세를 구축하기로 했다.

가을철 산불은 논·밭두렁을 태울 때 발생하는 사례가 30% 이상을 차지한다. 산림이 인접한 밭두렁과 농산폐기물 등은 함부로 소각하지 말라고 고창군 측은 당부했다.

허가를 받지 않고 산림이나 산림 인접 100m 이내에서 불을 피우거나 가지고 들어갈 때 3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실수로 산불을 낸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게 된다.

/고창=김형조 기자 khj@kwangju.co.kr

동학혁명 전승지 '황토현 전적' 위상 강화

정읍시, 정비계획 보고회...경관 조성·유적지 연계 방안 등 논의

정읍시가 동학농민혁명의 최초·최대 전승지인 황토현 전적(덕전면)의 가치를 부각하고 그 상징성을 강화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머리를 맞댔다.

정읍시는 지난 18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황토현 전적 종합정비계획 수립 용역 중간보고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보고회에는 이학수 정읍시장과 문화재청 사적분과위원장·위원, 정읍 동학농민혁명정신 선양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연구용역은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이 맡았다. 참석자들은 황토현 전적과 기념공원의 공간 재

구성과 연계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지난해 정읍시는 '동학농민혁명기념공원'과 '전봉준 장군과 동학농민군상(群像)'을 완공했다.

정읍시는 두 지역의 동학농민혁명 최초 전승지 의미를 부각하고 연계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황토현 전적을 단순한 유교식 추모 공간이 아닌 전승지의 면모를 강조하는 것이 핵심이다.

황토현 전적은 동학농민군이 관군과 싸워 최초이자 최대 규모로 승리한 역사의 현장이다.

하지만 유교식 추모 공간으로 조성되면서 본래

의미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또 오래된 시설 등의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보존관리를 위해 종합정비계획 수립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정읍시는 황토현 전적의 단기(2년)·중기(5년)·장기(10년) 정비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다.

전문적인 분석과 면밀한 검토를 통해 전적지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문화자원을 확보할 계획이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전승지 본연의 가치를 드러낼 수 있는 경관 조성 및 건물배치 마련 ▲동학농민혁명 최초·최대의 승리를 부각할 수 있는 상징성 강화 ▲'전봉준 장군과 동학농민군상'의 전적지 중심지 발전 방안 ▲황토현 전적과 정읍지역 동학농민혁명 유적지 연계 방안 등이 제시됐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parkks@

어느덧 50번째...고창 모양성제 개막

23일까지 5일간...제등행진·강강술래·답성놀이 등 다채

50번째를 맞은 '고창 모양성제'가 19일 개막했다. '50회 고창 모양성제'는 이날부터 오는 23일까지 5일간 23일까지 5일간 '제등행진' '강강술래' '답성놀이' 등 다채로운 행사가 열리는 고창의 대표 축제이다.

축제 첫날에는 취타대를 선두로 한 거리 행진이 자유중·터미널로터리-군청 광장-고창읍성 구간에서 열렸다.

심덕섭 고창군수와 임정호 고창군의회 의장이

진, 강강술래, 답성놀이 등 다채로운 행사가 열리는 고창의 대표 축제이다.

축제 첫날에는 취타대를 선두로 한 거리 행진이 자유중·터미널로터리-군청 광장-고창읍성 구간에서 열렸다.

심덕섭 고창군수와 임정호 고창군의회 의장이

선두에 섰고, 각 나라 전통의상을 입은 시민들과 조선허거악단이 행진했다.

1000여 명의 주민은 고창의 특산품인 수박과 땅콩, 고구마, 아가탄풍 등을 활용한 행진에 동참했다.

심덕섭 군수는 "새로운 모습의 거리 행진으로 축제의 시작을 알린 앞으로 5일간 펼쳐질 50회 고창 모양성제의 변화된 모습이 기대된다"며 "고창 모양성제가 지역 대표 축제를 넘어 대한민국 대표 축제로 자리매김해 더 많은 사람이 모양성제를 즐길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고창=김형조 기자 khj@kwangju.co.kr

그린궁

GREEN GOONG PRIME EVER 120

프라임에버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도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